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2/ 9(일) 연중 제 5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 2/11(화)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 2/16(일) 연중 제 6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신부님 휴가

2/10(월) ~ 2/28(금) 이 기간동안은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신부님을 위하여 안전한 여행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 합시다”

◎ 2025 현금 봉투와 2024 현금 영수증 핵업은 성당 사무실 재정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식

◎꾸리아 회합 2/9(일) 미사 후 하상실

◎울뜨레아 쇄신피정

- 기간: 2025년 2/28 (금) 오후 5시 – 3/2 (일) 오후 3시
-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 피정 주제: 동반자
- 참가비: \$300
- 준비물: 길잡이, 매일미사책, 목주, 세면도구, 실내화, 방한화 및 외투 장갑
- 마감 및 문의 접수: 2/16(일) 간사 박혜영 수산나

※ 신청서는 개시판에 있습니다.

공소 소식

- ◎ 이번 주 식사는 우민성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이번 주부터 성모회에서 공소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식사비를 일인당 \$5(7세 이상) 받습니다.
- ◎ 김대하 사도요한 신부님 휴가 기간(2/10 ~ 2/28) 중 미사집전 신부님 안내
2/16(일) - 정철용 안드레아 신부님
2/23(일) -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

구역모임 (소식)

- 1 구역 2/22(토) 14:00 이인선 젬마 자매
2 구역 2/15(토) 11:00 최경애 글라라 자매
3 구역 2/15(토) 12:00 친교실
4 구역 2/ 9(일) 14:00 친교실
5 구역 2/16(일) 13:30 친교실
6 구역 2/23(일) 14:00 친교실
7 구역 2/15(토) 17:30 이지훈 다니엘 형제

친교 식사

- 2/ 9: 4 구역(소고기 배추 된장국, \$5/\$3)
2/16: 5 구역 2/23: 6 구역 3/2: 7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3 명)			
주일현금	\$1380	교무금	\$1895
감사현금	\$0	성전건립	\$380
별현금 - 신학생양성을위한 현금 \$365			

◎ 2월 축일자 명단(7명)

- 2/ 4 요안나(임성신)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2/16 아가페(오예선)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2/26 이사벨라(이지민)

2025 희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퍼져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희년 (禧年, year of jubilee)

신자들 회개해 구원·해방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한 해. 전대사로 별 면 할 수 있게 도와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해. 같은 말 성년(聖年)

구약의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49년의 다음해. 즉 50년이 되는 해에 지낸
축제다. 희년은 빛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빛을 탕감 받고,
노예들이 해방돼 자유를 얻는 해였다. 구약의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상기시켰다
오늘날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다.
예수는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다. 구약의 희년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면, 오늘날의 희년은 영성적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 희년 동안은 전대사가 선포돼 신자들은
교황이 정한 조건과 순례 등을 통해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가톨릭 신문)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2/ 9	이은영 힐데가르트	유세진 라파엘, 최다희 보나	1 독서: 이인선 챈마 2 독서: 임연신 비아	전례부 I 박규혜 카타리나
2/16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우 바오로,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이인선 챈마 임연신 비아
2/23	이인선 챈마	최두원 스테파노, 박수은 헬레나	1 독서: 신낙홍 마리아 2 독서: 권희진 요안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치겠습니다.”

신기현 시몬 신부
광안 성당 주임

낚시를 해 본 분들 특히 낚시 전문가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물때를 맞춰 낚시해야 함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는 계절에 따라, 낮과 밤에 따라 고기 떼가 어디에 어떻게 몰려 있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통해 밤새도록 온 호수를 누비고 다니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치고 낙담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모르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대로 했더니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이를 두 눈으로 본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1,8)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전능 앞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드러날 수 있었던 동기는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식과 기술만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배에서 내려 버렸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하곤 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하거나, 모든 일이 허사가 되는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로 안 좋은 상황과 좌절만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충실히 땅을 때 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지친 베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치겠습니다.”(루카 1,5)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역시 그런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인의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내 판단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만이고, 나의 지식에 따른 삶이지, 진정 주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신앙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하느님 나라에 가기 전에 제대로 찾아 나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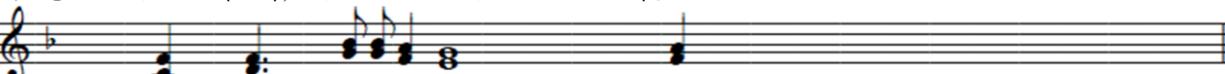


연중 제 5 주일

(2025. 2. 9.)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2 ¶ 3-8

화답송 시편 138(137), 1 과 2 ¶ 2 ¶ 3-4-5.7 ≡-8(◎ 1 ¶



후렴.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5,1-11

복음 환호송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